

“대학 도서관장은 전문인이어야 한다”

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문제... 전문직으로 운영 개혁해야

김정근

부산대 교수·문헌정보학

대학도서관이 증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어느 캠퍼스할 것 없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소문인 듯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정을 좀더 심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오늘 이 땅의 대학도서관은 아주 누워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앉아 있더라도 해야 일으켜 세우기가 그나마 쉬울 터인데, 완전히 나가자빠져 있는 형국이니 손대기조차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나 역시 대학도서관의 건강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평소의 관찰이 그러했거니와 80년대 후반 이래 지금까지 대학도서관과 관련하여 일련의 사태를 몸으로 겪고 난 다음에는 더욱 그렇게 보게 되었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

학생들의 도서관 개혁운동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일련의 사태란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80년대 후반은 그야말로 이 나라에 있어서 새롭게 불어닥친 정치의 계절이었다. 캠퍼스 내에서는 학원자주화, 민주화 투쟁의 돌풍이 불었다. 이 돌풍의 세를 등에 업고 문헌정보학 전공 학생들이 중심이 된 이른바 ‘대학도서관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전북대 등 한강 이남의 주요 캠퍼스들에서 제법 ‘인기’를 끈 데모의 한 줄기를 이루었다.

내가 있는 부산대의 경우, 이 운동은 87년 9월 개강과 더불어 시작되어 88년 12월 종강 때까지 무려 3학기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때 학생들은 학교당국과 도서관을 향하여 장문의 대자보 40여장을 날렸다. 거기에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관찰, 조사연구의 결과와 분노가 그들의 그룹 이토스와 뒤섞여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는 과감성을 가지고 그때까지 그 누구도 감히 언급하지 못했던 누적된 폐단의 한복판을 사정없이 파헤쳤다.

부산대 학생들의 데모가 두번째 학기에 접어들었을 때 학교당국은 도서관 규정을 고쳐 부관장직제를 신설하고 문헌정보학 교수인 나를 그 자리에 앉혔다. 나는 그 자리에 2년간 있었다. 그것은 내가 고조된 관심을 가지고 대학도서관 조직의 내부를 들여

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같은 도서관 조직의 내부를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그 뒤 관장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나는 관장직에 2년간 머물렀다. 나의 책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한울, 1995)는 이와 같은 일련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80년대 후반에 여러 대학에서 생산되어 나온 학생들의 대자보를 검토해보면 가장 심한 공격의 대상으로 도서관장이 떠올라 있다. 그때 학생들의 인식의 폭과 깊이를 가늠해보기 위해 당시 내가 수집해 두었던 자료에서 인용해본다.

“현재 부산대 도서관은 1년간 자료구입비만도 6억원이 넘는 거대한(?) 조직체이다. 그 조직의 장 자리에 60세 전후의 원로교수를 명예직으로 앉히니, 이것은 결국 경로석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벽이요, 가장 커다란 문제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부산대 도서관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관장의 무자격, 무능력, 무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산대 도서관개혁운동 대자보, 87. 9. 4일부)

“관장직은 무엇보다도 장서개발과 도서관 정보서비스 등 제반 업무와 도서관 경영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요한 직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대 관장과 현 관장(식품가공학과 교수)은 도서관에 관한 한 문의 한들이다. 이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도서관 일을 과연 책임질 수 있겠는가. 보직운동을 통하여 관장직을 가장 편안하고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리로 생각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구시대 잔재는 버려야 한다.” (전북대 도서관개혁운동 대자보, 88. 8. 31)

관장의 비전문화가 핵심문제

내가 보기에 대학도서관 문제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관장문제이다. 고도의 전문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대학도서관 조직의 꼭대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를 앉히는 관행이 우리 시대에 와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며 그 폐해 또한 얼마나 큰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 이제 대학도서관의 안과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나는 이 핵심고리가 풀리지 않고는 대학도서관의 다른 부차적 문제고리들도 풀릴 수가 없다



대학도서관은 특히 전문인의 운영이 필요한 곳이다. 사진은 최근 토털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갖춘 건국대 도서관.

고 생각한다. 사실 내가 이 말을 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조금 무뎠던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대학의 인사문제를 언급하는 데는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이 그런 것을 어찌랴. 소신대로 말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대학의 총장을 비롯하여 대학도서관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부분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도서관적 기술과 윤리의 훈련을 받지 않고도 도서관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다. 이제 도서관업무는 그 기술면에서나 정신면에서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쌓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으며, 그 정도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선두에서 지도해나가야 할 관장이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면서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대학의 원로다’ ‘나는 총장과 친하다’고 능청이나 떨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이따위 제스처에 권위 아닌 권위가 붙던 때는 이제 지나갔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대학도서관 업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도서관적 기술과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와야 할 기술들은 정보자원 개발, 처리, 검색, 전산화, 그 어느 분야를 물을 것 없이 훈련과 교육과정에서 배워지 않고 그냥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대학도서관의 전체 기술과정을 책임

있게 지도해나가야 할 관장 스스로가 이 훈련과정을 거친 바가 없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 의학을 모르는 사람이 병원장이 되고 고고학을 모르는 사람이 박물관장이 되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치다.

전후 사정이 이러하거늘 오늘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통계를 보면 더욱 놀라게 된다. 그야말로 우스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공립대학도서관 62개관, 사립대학도서관 131개관, 전문대학도서관 119개관, 각종 학교도서관 28개관을 합쳐서 모두 340개 대학도서관 가운데 전문직 관장이 업무지도를 맡고 있는 곳은 7군데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전문직 관장 확보율이 겨우 2퍼센트에 그치고 있는 꼴이다. 대학도서관의 운영은 당장 여기에서 크나큰 벽에 부딪혀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대학도서관이 병이 들어 누워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리더십의 부재다.

처방은 무엇인가. 나는 대학총장들의 인사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연, 학연, 인연에 따라 대학도서관장 자리를 나누어 주어서는 안된다. 선거용으로 그 자리를 약속해서도 안된다. 대학도서관장직은 결코 선심용 떡이 될 수 없다. 그 자리는 반드시 기능에 따라 채워져야 한다. 나는 궁극적으로 대학도서관장 직책은 대학교수의 겸직형 보직이 될 수 없으며, ‘하루 종일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실무를 책임지는 관리직 형태’ ‘애초부터 관장으로 채용되는 전문직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